



낭만과 여유로 표현된 목조 주택

초원의 녹음이 우거진 분당내추럴 하우스

분당에 있는 정인순 씨의 집은 잘 다듬어진 하나의 작품을 보는 것 같은 설렘을 주는 목조 주택이다. 여름의 부서질 듯한 햇살이 시원스레 어울려 삶의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 곳이다. 에디터 권희란 사진 우효성



1 옆은 베이지 컬러로 마감된 정인순 씨의 집 외관. '저 푸른 초원 위의 그림 같은 집'이 바로 이곳이 아닐까. 2 주차장으로 쓰이던 집 밖의 공간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마당으로 바뀌었다. 베이지톤의 건물 외관과 잘 어울리는 화이트 컬러의 현관은 언제나 깨끗한 느낌이다.

매년 여름이면 초록의 녹음이 주는 향기와 잘 가꿔진 정원에서 느껴지는 여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분당의 목조 주택. 정인순 씨가 가꿔 온 꿈과 사랑의 보금자리다. 대지 130평, 건평만 73평인 그녀의 주택은 집 전체가 나무로 되어 있어 여름에는 시원하면서도 겨울에는 따뜻하고 견고한 분위기를 전한다. 정인순 씨의 집 주변 동네를 걷다보면 마치 유럽의 작은 도시에 온 듯한 느낌이다. 동네 전체가 각기 다양한 목조 주택으로 건축되어 전체적으로 편안하고 깔끔한 인상을 주는 곳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살아요. 여유롭고 낭만적인 삶을 그리면서 조용하게 일상을 꾸미고 싶어하는 분들이죠. 우리 집은 아직 초등학교에 다니는 말쑥꾸러기들이 있지만 동네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녀석들도 집에 와서는 자기 할 일 알아서 하고 장난도 심하지 않은 편이에요."

그녀의 말처럼 주변은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물론 여유로움과 편안함을 수반한 고요함이지만, 정인순 씨는 그런 조용한 동네 분위기와는 왠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활달함과 쾌활함이 넘치는 안주인이다. 젊은 시절, 스튜어디스로 근무하면서 여러 나라를 여행한 경험이 많은 그녀에게 분위기가 남다르다. 전 세계를 다니며 사 모은 수집품과 특산품이 집 안 가득 진열돼 있는 것은 물론 낫노래를 하며 정원을 가꾸고 집안일을 하는 그녀의 모습은 적당한 집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가정주부가 수집했다고 하기에는 전문적인 리빙 소품들이 집 안 곳곳을 가득 채우고 있어 보기만 해도 눈이 황홀해질 지경이었다.

"여행을 좋아해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다보니 자연스럽게 민속품이



나 엔틱 소품에 눈이 가게 되고 원래 접시나 그릇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신나게 사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하나 둘 모은 게 주방 수납장을 꽉 채우고 거실 벽면까지 꾸미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평소 화통한 성격과는 너무 다른 여성스러운 취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고. 목조 주택은 자칫 잘못하면 지루함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갖가지 소품으로 꾸미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녀가 모은 접시나 그릇은 대부분 로열 코펜하겐 제품이다. 시즌마다 색깔을 달리해 발표하는 로열 코펜하겐의 제품을 빼놓지 않고 사들여 철이 바뀔 때마다 닦고, 진열을 바꿔보기도 하면서 사람 사는 재미를 느낀다고. 그뿐 아니라 러시아의 민속품인 마트로시카(똑같은 모양의 인형이 크기별로 있는 것)는 정인순 씨의 장식장 한쪽을 가득 채워 이색적인 재미를 준다. 그녀의 표현에 따르면 “그 인형 때문에 행운이 언제나 집 안에 가득한 것 같다”고. 마트로시카는 행운을 부르는 존재로 러시아인에게는 특별한 민속품이다. 그밖에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1 조리대가 넓은 7자형 주방, 중앙에 또 하나의 조리대가 있는데 이곳은 간단한 티 타임을 즐기기에 손색이 없다. 2 심플하고 깔끔한 분위기를 좋아해 청실도 되도록이면 단순하면서도 편안하게 꾸몄다. 상들리에를 놓지 않고 작은 스탠드로 현실의 분위기를 살렸다. 3 시원한 느낌이 들면 풍기는 레이스 테이블 클로스와 로열 코펜하겐의 티 세트, 고급스러우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4 정인순 씨는 작은 공간도 그냥 방치해두지 않는다. 주방의 계수대는 주부의 손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지만 그다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지 않는 공간이기도 하다. 영롱맞은 컵과 너무도 만든 집, 작은 화분 등으로 아끼기까지 꾸며놓아 싫거지를 하면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연도를 기록해 제작한 프랑스산 접시도 시선을 끄는 장식품으로 동화적인 분위기를까지 안겨준다. 이렇듯 정인순 씨의 집에는 온갖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잘 정리된 인테리어 그리고 고급스러운 야외 테크까지, 예쁘고 안락함을 선사한다.

꼼꼼한 시공, 완벽한 인테리어가 주는 즐거움

"이 집을 지을 때 무엇보다 중요시한 점은 바로 가족이 함께 즐길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원래 없던 야외 테크를 만들고 밖으로 빠져 있던 주차장 공간을 울타리안으로 넣어 마당으로 꾸미었어요. 아이들이 뛰노는 공간에 차가 있다는 게 웬지 싫더라고요. 이 동네는 언뜻 보기에는 고만고만한 집처럼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집주인의 개성이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집은 마당과 야외 정원이 넓다는 게 특징이죠. 대문은 너무 클 필요가 없어요. 자연과 함께 숨쉬는 공간이 많을 수록 마음도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서 좋거든요."

정인순 씨의 집은 기존의 집을 다시 증축한 것으로, 주변의 집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가령 주차 공간이 울타리안으로 들어와 넓은 마당으로 바뀌었다든지 건물의 외관을 원 모양으로 정원이 늘어선 것 등이 그렇다. 그녀가 그릇 모으기에 열중한다면 남편은 식물 가꾸기에 정성을 쏟는다. 그래서 그녀의 정원에는 형형색색의 꽃과 갖가지 모양의 이파리를 가진 이름 모를 식물들, 아직은 많지 않지만 곳곳에 있는 나무들이 그런 부부의 밤의 결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 시가로 따지면 15억 이상 될 집인데, 이들의 이런 정성이 아마 현실적인 값어치를 더 올릴지도 모르는 일이다. 정인순 씨의 집을 방문한 사람마다 하나같이 '볼 것 많고 정성이 가득한 집'이라는 평이 자자하다고.

특히, 정원이 집을 7자형으로 둘러싸고 있어 항상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작은 대문을 열고 계단을 오르면 현관이 바로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7자로 꺾인 입구가 은밀한 느낌을 주도록 개조했다. 가족만의 공간이므로 외부인에게 침해받고 싶지 않다는 게 정인순





2



3

1 자연광이 들어와 더욱 실내를 밝고 화사하게 해주는 천장의 창 그리고 벽면을 꾸미는 연도를 기록한 크리스마스 집시 장식장, 브라운톤으로 처리된 백넨로 용으로 이루어진 거실. 너무 화려하지 않은 상층리에가 오히려 내부를 더욱 넓게 보이도록 한 심플한 인테리어가 돋보인다. 2 정인순 씨의 여성스러운 취향을 알 수 있는 다이닝 룸. 그녀가 수집한 갖가지 그릇과 집시, 찻잔 세트 등이 장식장을 빼곡히 채우고 있다. 3 집의 외관의 주조 칼라이기도 한 베이지톤으로 마감된 아늑하고 심플한 욕실.

씨의 생각이다. 햇살이 내리쬐는 정원에는 여러 종류의 꽃과 화분 그리고 나무를 심고, 그늘이 많은 곳의 정원에는 주로 잔디와 의자, 수석 조형물을 놓아 조경에도 신경을 썼다.

“잡초를 뽑고 잔디를 정리하고 화초에 물 주고 하다 보면 하루 해가 금방 가요. 보기에 예쁜 건 그만큼 정성이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집도 마찬가지예요. 깔끔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집은 그만큼 이유가 있어요. 건축 설계부터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그저 어떻게 지어지겠지 하면 날림 공사밖에 안 돼요. 기초공사부터 세심하게 살피고 그다음부터 집을 꾸미는 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해요.”

정인순 씨는 단순히 집을 꾸미는 취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건축부터 데코레이션까지 살피는 특기'를 지닌 예사롭지 않은 주부다. 스텐디스로 일한 덕에 사교적인 성격과 풍부한 상식으로 주변 사람에게 웃음을 주고 기분 좋게 하는 능력을 가진 부지런한 사람이기도 하다.

또 그녀는 1, 2층을 오르내리며 계절이 바뀔 때마다 소품을 바꿔 장식하며, 집안 구석구석 허술하게 방치되지는 않은지 살피는 데 여념이 없다. 그녀의 이런 밝고 활기찬 성격을 닮아 더욱 환하게 빛나는 거실 창문과 주방의 야외 테크로 통하는 테라스, 은은한 카페 분위기까지 연출되는 2층의 야외 발코니는 집안 전체의 환기구 같은 역할을 한다.

정인순 씨는 심플하고 군더더기 없는 인테리어를 지향한다. 그래서 침실이나 아이들 공부방, 욕실 등의 모든 공간이 그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깔끔하다. 다만 주방만은 예외다. 그녀가 수집한 물건들과 남편이 아끼는 화초들이 보이는 창가, 아이들의 손때가 묻은 작은 소품들이 있는 '행복이 묻어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현실을 마치 꿈을 꾸듯 환상적인 동화의 공간으로 바꿔놓는 마력을 지닌 사람인 정인순 씨의 집은 언제나 그렇게 다듬어진 행복을 머금고 있을 것만 같다. ☺